

두산
인문극장
2026



6.24-7.12

신분류학
New Taxonomy

나는 나의 아내다
I Am My Own Wife

by Doug Wright

*Original Broadway Production
by Delphi Productions
and David Richenthal.*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인문학적, 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로 매년 주제를 정하여 그와 관련한 공연, 전시,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2025	지역 LOCAL
2024	권리 Rights
2023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
2022	공정 Fairness
2020	푸드 FOOD
2019	아파트 Apartment Nation
2018	이타주의자 Altruist
2017	갈등 Conflict
2016	모험 New Imagination on the Extended Territory
2015	예외 例外 Exception, Mutation, or Abnormality on the Borders
2014	불신시대 The Age of Distrust
2013	빅 히스토리: 빅뱅에서 빅데이터까지 Big History From Big Bang to Big Data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나누나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22년 7월이다. 이전에 우주를 관찰하던 허블 망원경에 비해서 100배의 능력을 갖춘 이 망원경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우주 탄생 초창기부터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주에 대한 이론에는 이 시기에 블랙홀은 없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블랙홀이 많이 발견되었다. 우리가 포함된 우주를 이해하려면 이론을 뒤엎고 새롭게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주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다고 문제가 그냥 풀리진 않는다. 국경은 흔들리고 힘의 간섭은 국경을 넘는다. 약자에 대한 배려, 함께 누리는 번영, 분쟁 없는 평화 같은 가치들은 휴지통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원칙들도 모두 도전 받고 있다.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 새롭게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분류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분류는 완전할 수도 없고, 기준도 임의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계는 깔끔한 법이 없고 에너지가 넘친다. 시간이 흐르면 쉽게 빛도 바랜다. 그래도 우리는 새롭게 분류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경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경계를 다시 그어보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가 안주해 온 문명, 그리고 그것을 받치고 있는 과학의 근본적인 지형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그 속에 동지를 틈 생명과 인간, 그들이 이룬 사회적 약속의 변화까지 새로운 분류학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접근해 볼 예정이다.

강연

연강홀

문명과 야만 사이의 한국: 정체성에 대하여

김영민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4.6

생물과 무생물: 경계를 허무는 생명과학의 시대

이준호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4.13

포스트휴먼 경제학: 사라지는 인간, 드러나는 비인간

이동신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4.20

서양과 동양의 과학: 그 이분법을 넘어서

임종태 /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4.27

미디어와 언론: 연결에서 파열로

이상길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6.8

놀이의 죽음: 첨단기술 시대의 노동과 놀이

손화철 / 한동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6.15

인공지능과 미래 예측: 판단하는 인간, 예측하는 기계

전준 /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

6.22

유죄와 무죄: 그 연약한 구분

김기창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9

공연

Space111

연극 모어 라이프 More Life

작. 로런 무니 & 제임스 예이트먼(Lauren Mooney & James Yeatman)

번역. 김수아 / 연출. 민새롬 / 출연. 공지수 김용준 마두영 이윤재 이주영 이진경

4.29-5.17

연극 원칙 Principle

작. 귀용캉(郭永康) / 번역. 장희재 / 각색. 강훈구 / 연출. 이준우

출연. 박현숙 오용 박종태 김현진 김혜령

5.27-6.14

연극 나는 나의 아내다 I Am My Own Wife

작. 더그 라이트(Doug Wright) / 번역·드라마터그. 김기란 / 연출. 강량원

출연. 지현준 백석광

6.24-7.12

전시

두산갤러리

3개국어 The Multilingual

참여작가. 김익현 Gim Ikhyun 임영주 IM Youngzoo

정서영 Chung Seoyoung 조은영 Choey Eun Young Cho

6.24-8.1

나는 나의 아내다 I Am My Own Wife

by Doug Wright



접근성 사항

휠체어석

안내보행

문자소통

수어통역
일부 회차

터치투어
일부 회차

한글자막
해설

음성소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2014 제50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2013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제6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신인연기상’

시놉시스

미국에서 게이로 살아가던 작가 더그는 통일된 독일에서 미국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친구 존에게서 샤로테라는 독특한 인물에 대해 듣게 된다. 동베를린 출신의 샤로테는 히틀러의 나치 시대와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남은 여장남자였다. 샤로테는 1890년대 생산된 축음기, 시계, 가구를 수집하고, 그 당시 성소수자들의 휴식처였던 카바레 물락리제를 정리하여 자신의 집에 그윈더짜이트라는 박물관을 만들었다.

더그는 샤로테의 인생을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 그(그녀)와의 인터뷰를 시작한다. 성소수자이면서 나치 시대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그 이상의 모호하고 놀라운 삶에 매혹되는 한편,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음성 안내



작가 소개

작 더그 라이트 Doug Wright

연극

〈Good Night, Oscar〉 〈Posterity〉 〈I Am My Own Wife〉 〈Watbanaland〉 〈Quills〉

뮤지컬

〈War Paint〉 〈Hands on a Hardbody〉 〈The Little Mermaid〉 〈Grey Gardens〉

영화

〈The Burial〉 〈Quills〉

수상

2004 드라마데스크어워드 Best Play 〈I Am My Own Wife〉

 폴리처상 드라마 부문 〈I Am My Own Wife〉

 토니어워드 Best Play 〈I Am My Own Wife〉

1996 오비어워드 Best Playwriting 〈Quills〉

연출 노트: 사물과 기억이 말하는 역사, 그 보석함을 열며

우리는 샤로테를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 그녀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술이 마주하는 존재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자신을 설명할 언어를 갖지 못한 이들, 혹은 이미 존재하는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이들입니다. 예술은 그들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존재의 빛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낯선 언어는 때로 관객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3년 초연 당시 우리는 히틀러 시대와 공산주의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서도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 트랜스젠더의 삶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억압과 편견,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무대 위에 펼쳐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연은 시대나 사회가 부여한 무게보다 ‘샤로테’라는 한 사람의 내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을 좋아했고, 언제 행복했으며 어떤 꿈을 꾸고 누구를 사랑했을까?”

샤로테는 자신을 향한 거대한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피해 가고, 빗겨 나가고, 때로는 공존하고 가장하며 살아갔습니다. 모른 체하기도 했고, 속이기도 했으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취약한 내면을 드러내며 생긴 빈자리에 자신보다 더 연약한 인간들과 비인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름다움과 꿈, 음악과 색채를 잃지 않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며 살았습니다.

이번 작품은 극작가 더그가 샤로테의 삶에 매료되어 그녀의 생애를 희곡으로 써 내려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그는 처음에 자신이 가진 익숙한 관념들로 샤로테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곧 실패하고 맙니다. 샤로테는 몇 개의 단어와

문장으로 정의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약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순수하지만 때로는 교활하며, 진실한 인간인 동시에 능숙하게 사람을 속일 줄도 아는 존재. 그 모순과 복잡성 속에 샤로테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하나의 전시장이자 작은 극장이며, 동시에 샤로테의 거대한 보석함을 확대해 놓은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가 평생 모아온 사물들, 사랑했던 음악, 그리고 그녀의 기억과 경험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관객 앞에 펼쳐 보이하고자 했습니다. 무대는 비루한 것들, 버려진 것들, 쓸모없다고 여겨진 것들, 인정받지 못한 것들, 그리고 결국 소멸할 것들로 채워집니다. 세상은 외면했지만 샤로테가 자신의 보석함 속에 가장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입니다.

배우들은 단순히 샤로테를 흉내 내는 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샤로테가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샤로테 뿐만 아니라 더그, 무대 위를 스쳐가는 수많은 인물, 박물관, 기억 속 어머니와 알프레드까지도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중첩되는지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샤로테는 말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기억과 사물이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벽시계와 축음기를 수집했던 그의 마음을 따라 배우들은 무대 위의 사물들마저 되어보고자 했습니다. 몸에서 몸으로, 손에서 손으로, 눈에서 눈으로, 그리고 사물에서 사물로 이어지는 연기를 통해 우리는 샤로테를 이해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객분들께서도 이 보석함 안에서 잠시 샤로테가 되어 보기를, 그녀가 소중히 간직해온 기억과 사물들이 들려주는 작은 역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출 강량원

연극

〈목티〉 〈제비심장〉 〈복도 굴뚝 유골함〉 〈멕베스〉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어느 날 난민〉 〈새넙곶나거든〉 〈콘센트-동의〉 〈투명인간〉
〈상주 국수집〉 〈나는 나의 아내다〉 외

수상

2025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목티〉
2018 제55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월간 한국연극 ‘올해의 공연 베스트 7’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2016 제53회 동아연극상 연출상, 작품상 〈베서니 집〉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베서니 집〉
월간 한국연극 ‘올해의 공연 베스트 7’ 〈베서니 집〉
2013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나는 나의 아내다〉
2010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비밀경찰〉
월간 한국연극 ‘올해의 공연 베스트 7’ 〈비밀경찰〉
2008 제45회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삶은 진화하고 예술은 ‘그것을’ 반영한다



12년 만에 <나는 나의 아내다>가 돌아왔다. 2013과 2014년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공연되었던 <나는 나의 아내다>는 120분의 모노드라마라는 눈길을 땔 수 없는 굉장한 공연으로 주목받았다.

두산아트센터의 ‘두산인문극장 2013: 빅 히스토리’ 기획을 통해 공연되었던 <나는 나의 아내다>의 초연 무대는 간명하게 “아카이브”로 요약될 수 있다. 35명의 인물을 단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무대는 한 인간의 몸이라는 특별할 것 없는 물질을 통해 다양한 인물과 그들의 신념을 보여주었다(서술하지 않았다!). 주인공 샤로테 폰 말스도로프 Charlotte von Mahlsdorf(본명 로타르 베르펠데 Lothar Berfelde, 1928-2002)는 트랜스베스티트(Transvestit, 타고난 성별과 다른 성의 복장을 즐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독일어 용어)의 정체성으로 나치 전체주의 독일, 냉전기 독일의 사회주의, 통독 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낸 실존 인물이다. 초연의 무대는 “어느 체계에서도 용납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무국적자(강량원 연출)”라 할 수 있는 ‘샤로테’를 통해 “근대의 폭력적 위계의 역사가 저절로 따라 나오도록(김기란 드라마터그)” 연출되었다.

초연을 통해 발견해 낸 귀중한 본질은 인간의 몸에 깃든 물질성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인물을 담기 위한 고정된 형상이 아닌, 규정할 수 없는 물질로 이해하고, 그 물질이 무대 위에서 쉽 없이 변화하는 생기(生氣)를 전달한 지현준 배우의 진귀한 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곧 “넘나들이 가능한 그 몸 자체”가 <나는 나의 아내다>의 문체적 지점이자 주제 의식이 집약된 장소였고, 무대 위 샤로테의 몸은 근대적 질서와 역사에서 배제되거나 비루한 것으로 삭제되었던 존재들을 놓치지 않고 아카이빙한 인간종(人間種)의 총합을 지향했다.

2026년 <나는 나의 아내다>의 재연을 기획하며 초연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많은 것을, 공연을 만들 모든 이들과 함께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새삼 확인한 것은 삶은 진화하고, 연극은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적 전제다. 우리는 초연 무대의 아카이빙이 인간 본위의 아카이빙이었다는 점을 성찰했다. 초연 이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처한 세계 상태는 “반려종(Companion Species)”을 인정하고 비인간 물질들과의 공존을

모색하며 진행되고 있다. “반려종이란 가차 없이 함께-되기”*의 다른 표현이다. 인간 본위의 사고를 해체할 때 비로소 보이는 반려종들, 새로운 분류학은 그것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2026년의 〈나는 나의 아내다〉는 샤로테의 아카이빙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평평하게 탐색하는 데서 시작했다. 샤로테의 ‘구술’을 통해 가시화된 물질들은 인쇄된 기록에서는 삭제되었던 것들이다. 그것들의 존재가 가시화되고 감각될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은 사물들의 연출에도 힘을 쏟았다. 곧 근대의 초입, “즐거운 90년대”로 표상되는 그윈더짜이트 시대가 등장한 후 인간종과 공진해 온 물질들, 그 존재 방식이 부정되거나 존재 자체가 망각되었던 사물들의 생기(生氣)를 발견하고, 사물들의 “하녀”를 기꺼이 자청하는 샤로테가 그것들과 맺는 ‘관계’를 보여주려 했다.

소중한 보석함을 형상화한 무대 위로 물질 혹은 사물을 불러낼 수 있는 존재가 샤로테다. 샤로테의 특별함은 이로부터 발현된다. 그것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고장 나고 쓸모없는 사물에 불과한 것들이다. 불러 나온 사물들은 자신의 자리에 위치한다. 물론 정해진 자리나 위치는 없으니, 사물들의 위치에 대한 질서나 규칙을 찾으려 할 필요도 없겠다. 자리 잡은 것들은 샤로테의 삶을 드러낸다. 그것들은 샤로테의 몸을 변화시키고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샤로테에 접근한 두 배우, 지현준과 백석광은 행동의 대상으로 사물과 씨름했다. 그 과정은 고통과 혼란의 연속이었으나, 물질로서 인간과 사물이 동등한 격이 되는 순간은 시시때때로 감각되었다.

인간이 만든 질서 밖으로 던져진 퇴비 더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단한 유기적 미세 움직임을 통해 또 다른 물질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21세기 불안한 세상의 메커니즘은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선형적 인과가 아닌 순환적 피드백의 과정 속에서 개별적 생기를 담지한 채 ‘스스로’ 작동되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말한 바 “시멘트를 바르지 않은 돌담”처럼 서로를 결합시키는 시멘트 없이도 겹겹이 쌓인 돌담이 만들어지듯 유기적이거나 비인과적 연결 작용을 통해 무언가를 형성하는 중일 수도 있다. 샤로테의 몸에서 시작되어 정동적 반응을 일으키며 작동하는 ‘반려종들의 함께-되기’를 관객들도 감각하게 되길 바란다.

*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Staying with the Troubl)』, 최유미 옮김 (마농지, 2021)



모두를 나처럼, 나를 모두처럼

문어는 대략 5억 개 정도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1,000억 개 가까운 뇌세포를 가진 인간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지만, 강아지와는 비슷한 숫자다. 하지만 숫자로 문어의 지능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인간과 강아지처럼 신경세포가 전부 두뇌에 있지 않고, 그렇기에 두뇌로만 지능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문어 신경세포의 2/3는 다리에 퍼져 있으며, 따라서 문어는 머리와 8개의 다리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한다. 두뇌만 보고는 지능을 알 수 없기에, 생물철학자인 피터 고프리스미스는 문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인간과 다르기에 고프리스미스는 문어와 대화하는 일이 “지능이 있는 외계인을 만나는 일”과 같을 거라 상상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찾아볼 수 있는 SF 장르에서 눈에 띄는 최근 작품 중 하나는 앤 렉키의 『사소한 정의』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하나의 우주선이고, 그 우주선에 승선한 수천 명의 부관들이다. 이들은 각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하나의 인공지능이다. 작품은 우주선과 부관들의 파괴에서 생존한 유일한 인물인 브렉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20년 전 일이지만 브렉은 여전히 “나”에 대해 혼란스러워한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는 ... 우주선 전체와 부관 모두”였지만, 이제 “나”는 단 하나의 몸에, 단 하나의 두뇌”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하나지만, 그에게 “나”는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여럿이어야 하기에 혼란스러운 것이다.

현실의 문어나 상상 속의 인공지능에게 여럿인 “나”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 속의 인간에게는 정반대가 요구된다. 특히 불안과 불신이 많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보이는 “나”와 다른 “나”를, 혹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나”와 다른 “나”를 가진 이들을 부도덕한 사람, 범죄자, 환자, 심지어 인간 이하의 무언가로 취급한다. <나는 나의 아내다>는 그런 사회에 살았던, 그런 인물을 보여준다. 2차 세계 대전 중의 나치 정권은 유대인과 동성애자를 선별해 감금하고 학살했고, 냉전 시기의 동독은 많은 이들을 서방을 위해 일하는 잠재적 스파이로 의심하고, 분류하고, 처벌했다. 갖가지 이유로 엄청난 폭력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제는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감추려는 정치적인 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샤로테는 그러한 폭력의 희생자가 될 이유가 충분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는 나치 정권과 냉전 시기의 동독에서 살아남은, 그리고 이제는 훈장을 받고 자서전을 쓸 만큼 성공한 인물이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스스로 다양한 “나”를 만들어 살아왔기 때문이다. 문제시될 수 있는 “나”를 숨기는 대신에 생존에 필요한 “나”로 살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나”로 살아왔다는 이유로 샤로테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 두 사회를 견뎌낸 수많은 이들, 유사한 사회들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샤로테가 더그가 되고 존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더그도 샤로테가 되고 존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정체성을 숨기거나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 사는 이들에 비해 샤로테는 어떤 점이 특별할까? 그런 이들을 등장시키는 많은 작품과 비교해 <나는 나의 아내다>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무엇일까? 우선 제목에서 답을 찾아보자. 샤로테는 자신이 마흔 살이었을 때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한 말이라고 밝힌다. 빨랫줄에 스타킹과 가터벨트를 거는 그에게 어머니는 “너는 남자로 성장했어. 결혼은 언제 할 거니?”라고 물었고, 샤로테는 “난 결혼 안 해요, 엄마. Ich bin meine eigene Frau. 내가 나 자신의 아내니까요”라고 답했다. 그냥 들으면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의 삶을 선택한 자신을 남성으로 회귀시키려는 결혼 제도를 거부하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을 여성이 아니라 “아내”라고 밝힌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결혼 제도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이미 결혼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사는 제도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로타르, 즉 샤로테의 소위 ‘본명’을 가진 남성은 한 사람이고, 샤로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성도 한 명이라는 사실이다. 태어날 때 가진 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한 사람으로 사는 일이 자연스럽다고 한다면, 자라나면서 다른 성을 선택해 한 사람으로 사는 일은 부자연스러우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심지어는 양성으로 사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은 혼자서 서로 다른 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기껏해야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진단받고 치료 대상으로 살 뿐이다. 그런데 샤로테는 그렇게 살 거라고 말한다. 그는 “나의 아내”인 만큼 “나의 남편”이기도 한, 하나가 되어 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사회에서 샤로테는 둘로 살아갈 거라고 말한다. 하나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것만 같지만, 사실 그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와 혜택을 포기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둘이지만 하나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마치 원본이 사라진 복제품이나 혹은 클론처럼, 각자 아무리 원본과 비슷해도 원본의 지위는 가질 수 없는 삶이다. 게다가 복제품으로서, 클론으로서,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말을 빌리면 “언제나 이미” 복수인 존재로서 고유한 지위를 받지도 못한다. 유명처럼, 메아리처럼 살아야만 한다. 하지만 샤로테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자신과 비슷한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작품은 그 사랑으로 시작한다. 바로 축음기에 대한 사랑이다. “거대한 엔틱 에디슨 축음기”를 안고 무대에 등장하는 샤로테의 첫 대사는 자신도 아니고 사회도 아닌 이 “음악기계”에 관한 내용이다. 축음기는 “원통 모양의 실린더”를 사용하고, 그는 한때 “15,000개가 넘는 실린더를 모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난 “50년” 간 그랬듯이, 축음기 크랭크를 돌려서 소리를 재생한다. 들리는 소리는 물론 원본이 아닐 것이다. 원래의 연주자나 가수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원본이 될 수는 없다. 애초에 원본은 불가능하고, 원본 없는 복제품들 중 하나가 들리는 것이다. 이들은 여럿으로 탄생한 것으로, “언제나 이미” 원본의 지위를 빼앗긴 채 살아간다. 여럿이었기에 종종 부서져도 버려져도 괜찮은 듯 다루어진다. 그런 복제품을 샤로테는 지난 50년간, 세계 대전과 냉전이 있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사랑해 왔다고 말한다.

하나였지만 둘이 되고, 그 둘을 사랑으로 하나로 이어서 “나의 아내”이면서 나의 남편이 된 샤로테가 하나의 이름 아래 여럿으로 존재하는 복제품을 사랑하는 일은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에게 “나”는 언제부터가 둘이었고, 하나일 필요가 없었기에 “나”의 100퍼센트 순도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나”가 둘이라면, 셋이나 넷이나 그 이상이 될 수 있을까? 여럿이 “나”가 될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니어도 그 여럿에 들 수 있을까? 샤로테는

“나의 아내”이면서 남편이면서 더그면서 존이면서, 심지어는 복제품일 수 있을까? 한 명의 배우가 모든 인간 인물을 연기하는 설정을 통해, 작품은 적어도 인간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암시한다. 아무리 인간 사회가 한 명에게 하나의 정체성만을 요구해 왔다고 해도, 샤로테의 생존과 성공은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제품과 같은 비인간에 있어서도 그럴까? 자신의 그린더짜이트 박물관을 소개하면서 샤로테는 이렇게 말한다. “한 가족이 몰살당하면 나는 그들의 가구가 되었습니다. 1차 세계 대전 유대인들이 추방되었을 때도 나는 그들의 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가 된 가구들을, 그리고 가구들이 지금 놓여있는 “낡은 집”을 “마치 오래된 애인처럼” 사랑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없었다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한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내 안의 남편과 아내만큼이나 그것들이 “나”의 생존을 책임졌다면, 그 모두가 “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렇게 분류되지 않았던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꼭 인간만으로 “나”를 분류할 필요는 없다. “나”는 다른 성을, 다른 사람을, 다른 비인간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일까? 훈장도 받고, 자서전도 쓸 정도로 대단한 일일까? 하지만 문어도 할 수 있고, 인공지능도 언젠가는 할 법한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동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미국소설, SF, 포스트휴머니즘 등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최근에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동물관계를 고민하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세 흐름』 『SF, 시대정신이 되다』 『다르게 함께 살기:인간과 동물』 등을 썼고, 『기이한 실재론』, 『러브크래프트 걸작선』, 『점원』, 『갈라테아2.2』 등을 번역했다.



지현준

샤로테·더그 외 역

뮤지컬

〈물랑루즈〉〈레드북〉〈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하데스타운〉
〈파과〉〈컴프롬어웨이〉〈명동로망스〉〈모비딕〉 외

연극

〈헤다 가블러〉〈붉은 낙엽〉〈카사노바〉〈맥베스〉〈아마데우스〉
〈사랑의 끝〉〈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벽 - 이방인 이피게네에〉
〈지구를 지켜라〉〈빛의 제국〉〈나는 나의 아내다〉 외

영화

〈그녀가 죽었다〉〈야차〉〈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남산의 부장들〉
〈판도라〉〈고산자〉 외

드라마

〈삼식이 삼촌〉〈소방서 옆 경찰서〉〈킹덤: 아신전〉
〈나를 사랑한 스파이〉〈하이애나〉〈원티드〉 외

무용

〈정죄〉〈계보학적 탐구〉〈sys.선택되지 않은 시간〉〈데칼로그〉
〈순례자〉〈세 번째 전환〉〈로튼애플〉 외

퍼포먼스 전시

《큐빗 투 아담》《그 가운데 땅: 시간이 펼쳐져 땅이 되다》
《새넵곳나거든》《90억 가지 신의 이름: 최찬속展》
《빈티지 유니버스》 외

수상

2014 제50회 동아연극상 유인촌 신인연기상 〈나는 나의 아내다〉
2013 제6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신인연기상 〈나는 나의 아내다〉
2012 제6회 더 뮤지컬 어워즈 남우신인상 〈모비딕〉



백석광

샤로테·더그 외 역

연극

〈타지마할의 근위병〉 〈보이즈 인 더 밴드〉 〈지킬앤하이드〉 〈햄릿〉
〈더 웨일〉 〈추남, 미녀〉 〈내게 빛나는 모든 것〉 〈그을린 사랑〉
〈죽음의 집〉 〈아마데우스〉 〈와이프〉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외

드라마

〈종말의 바보〉 〈세작, 매혹된 자들〉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오늘의 웹툰〉 〈인사이드〉 〈스물다섯 스물하나〉 〈괴물〉
〈의문의 일승〉 외

수상

2025 제4회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2020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 〈와이프〉





연습 노트

1

1월 21일 수요일

강량원(연출) 〈나는 나의 아내다〉를

우리가 작업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공연을 퇴비로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 이것이 굉장히 직접적인 개념처럼, 방향처럼 제시되는 것 같아서요.

신분류학이라고 할 때 인간, 생명, 비사물, 또 그 안에서도 동물, 식물, 이런 것을 분리해서 그 정점에 인간을 두고 그 아래 종속되는 존재로 정리해버리는 것 같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제기 안에 퇴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리할 수 없도록 섞여 있다, 이 개념이 퇴비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런 것을 지향하기도 해야 하고 이미 그렇다고 인정해야 하고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샤로테라는 인물이 그런 성질의 존재 같아요. 퇴비처럼 쌓여 있는.

2월 20일 금요일

강량원 신분류학이라는 두산인문극장의

주제가 이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때 잘 어울리는가, 두 번째 작업이기 때문에 초연 때 ‘빅 히스토리’ 주제로 바라보았을 때와 신분류학으로 바라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인간-되기. 인간과 비인간에서 비를 팔호 안에 넣은 것은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일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인류, 혹은 인간중심주의라고 할 때 〈나는 나의 아내다〉의 샤로테는 그 이전에는 인간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인간하고 인간이 아닌 동·식·광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개념, 종교 이런 것이 다 (비)인간인 것이죠. 그럴 때 이원론과 인간중심은 붙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유물론적으로 보면 움직임 하나, 몸 하나, 의자 하나 그다음에는 슈타지의 명령문 하나, 다시 몸 하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나란히 놓인다는 것이죠.

4월 28일 화요일

강량원 이번 작업의 가장 큰 차이는

샤로테가 사물을 대하는 미장센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을 완성된 전체적 존재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현재 분류학이나 신유물론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샤로테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사는지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2

4월 30일 목요일

강량원 알프레드를 장애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설정했는데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현준(배우) 장식품 같으면 좋겠다, 잘린 서랍이나 부서진 돌판 같은 그런 인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어요. 사람도 가구처럼 생각해 보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알프레드를 아무런 격차와 거리낌 없이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로테가 진심으로 대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잘 보이면 좋겠어요.

강량원 샤로테가 관심 두는 인간 혹은 비인간이 어떻게 보면 소수자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고, 그것에 대한 편견도 없어서 알프레드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도 타당함이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장애를 그의 결함이나 소재로 환원하는 것은 아닐지 신중하게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5월 1일 금요일

강량원 축음기가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 자체의 확산이 내 주변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닿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현준 장애인을 위해 확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죠?

강량원 청각장애인이 실린더를 보면서 눈으로 음악을 듣게 하는, 이런 목적이었더라고요. 음표 같은 느낌으로 청각을 시각화한 거예요, 최초로. 어제 우리가 알프레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화단에 수많은 다른 꽃이 있으면 그 자체로도 다양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소수자들의 연대 같이 느껴지는 것도 좋겠어요. 생각이 더 열리는 것 같아요.

5월 5일 화요일

강량원 이 사람이 가진 세계관 안에서 이 사람이 가진 사물성, 포스트휴머니즘적인 위치를 고민해 봤어요. 사물을 놓는 것이 어떻게 동등할 것인가,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것인가. 인간중심주의가 가지게 된 수많은 폐해는 땅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동안 없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의식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던 거죠. 인본주의나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은 15-16세기 이후부터 있었을 것이고, 휴머니즘이 파괴된 이후에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물을 그렇게 대할 수 있었지?’

김기란(드라마터그) 굉장히 아낀다는 것은 무슨 차이로 감각될 수 있을까요?

백석광(배우) 그것은 대상이 다르다는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비싼 물건을 대하는 것과 지금 샤로테가 가구를 대하는 것은 마음이 같지만 대상이 달라서, 값어치 있게 대해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샤로테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끝없이 사랑하고 아끼죠. 가구와 끝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5월 13일 수요일

강량원 우리가 성소수자, 성적 정체성을 그리는 것도 재현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는 것처럼, 장애를 표현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 방식으로 그려내는 게 가능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월 19일 화요일

지현준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니

35명의 캐릭터 중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캐릭터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의 성격, 특징이고 그 사람 자체인 것이라고요.

5월 20일 수요일

강량원 이를테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심에 있었잖아요. 아시아는 유럽의 타자로 존재하고, 짐승은 인간의 타자로 존재하고, 여자는 남자의 타자로 존재해서 그 타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김혜순 시인은 『여자짐승아시아하기』(문학과지성사, 2019)에서 아시아 여행을 하면서 비로소 내가 일평생 아시아하기와 짐승하기와 여자하기의, ‘하기’의 시를 썼다고 해요. 저는 아마 샤로테가 이런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사실 대부분 소외된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김혜순 시인은 그들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시선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 되기를 해야 이게 얼마나 한계가 있던 것이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생길 테니까요. 그럴 때 나를 긍정하고, 나의 낮됨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5월 22일 금요일

강량원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신가은(프로듀서)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관객들이 오해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비교적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프레드에게 장애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강량원 정말로 재현을 잘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지현준 배우 이야기처럼 이 사람이 당당한가, 자신의 삶을 만끽하는지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정확한 몸과 말을 하려고 애쓰다가보다 그 인물이 보여지도록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빛나는 알프레드.

6월 1일 월요일

명혜진(수어통역사) 장애인 관객들이 다른

개연성을 요구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알프레드의 장애가 고문의 흔적인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장애인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연성이 없어도 당연하게 인물이 나오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샤로테의 보석함

〈나는 나의 아내다〉의 무대는 샤로테가 평생 수집해 온 기억의 보석함이다.

보석함 속에는 가구가 있고, 축음기가 있고, 사진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있고, 사라진 베를린이 있고, 어린 샤로테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아직 살아있다.

그들은 배우와 함께 연기하는 존재들이다.

배우와 함께 연기하는 빛

이번 작품에서 빛은 배우와 함께 기억을 발굴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배우가 상자를 열면 빛도 함께 열리고, 기억을 더듬으면 빛도 그 기억을 따라 움직인다.

배우가 사물을 만질 때는 마치 그 사물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원한다.

빛은 무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와 함께 살아 움직이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연기자일 수 있다.

그림자는 또 하나의 배우

이 작품에서 그림자는 샤로테가 지나온 시간이며,

무대 위에 등장하지 못하는 수많은 존재의 흔적이다.

무대 위에는 한 명의 배우만 존재하지만, 그 뒤에는

죽은 사람들, 사라진 시대, 기억 속 인물들이 함께 서 있다.

그림자는 배우가 표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존재다.

색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

이번 작품에서 색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색은 기억이 가진 물질성(기억의 질감)과 시간의 흔적에 가깝다.

마지막 이미지

마지막 순간, 무대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보석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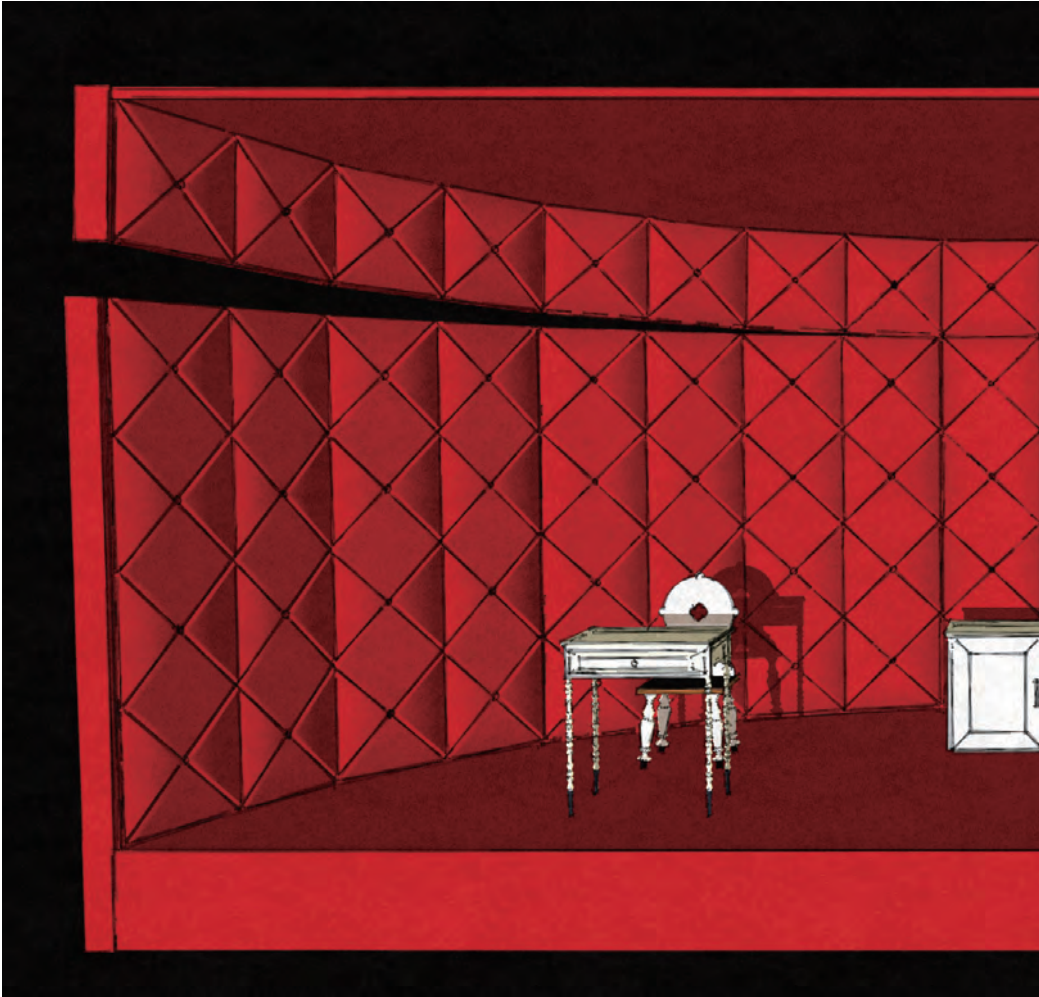
그 안에는 사람과 사물, 현재와 과거, 생자와 죽은 자가 함께 존재한다.

그때 무대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수많은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샤로테의 삶 전체가 남긴 흔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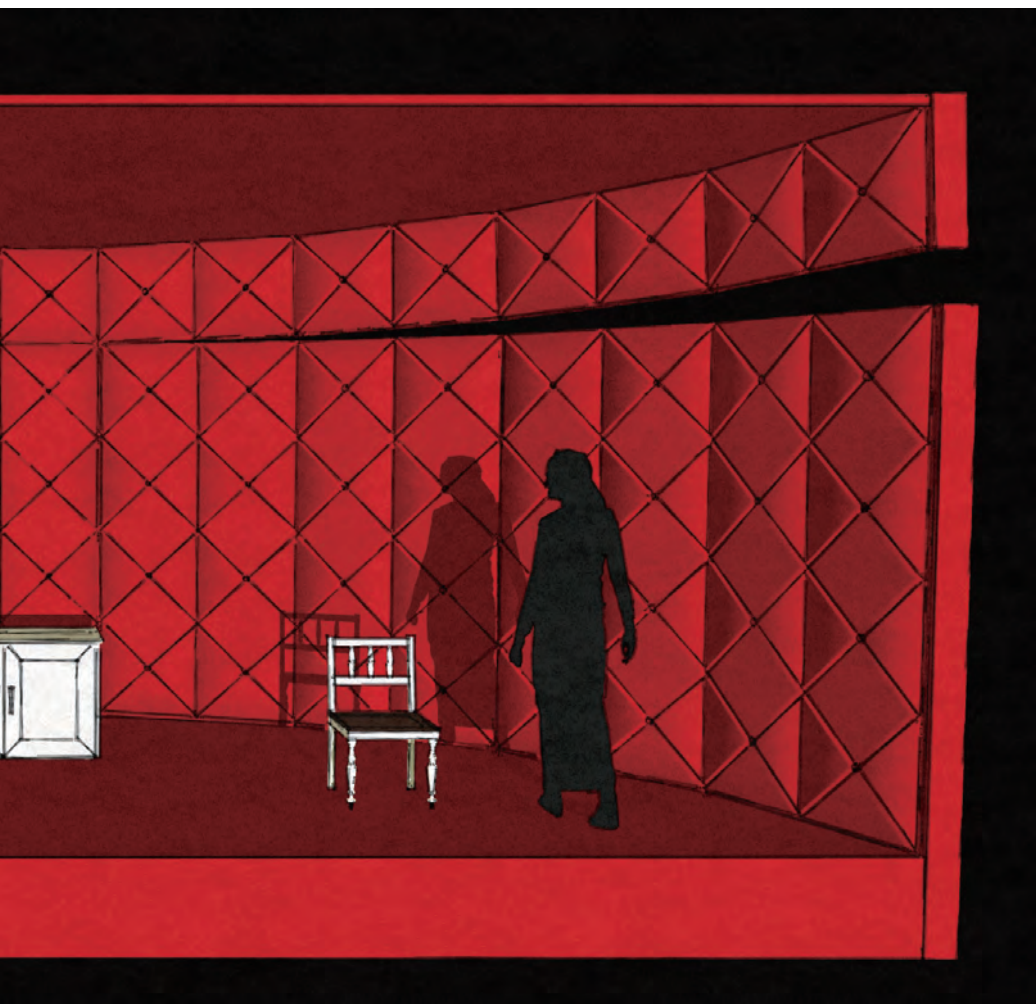
무대디자인 노트

누구나 자기만의 보석함이 있다.

세상의 분류법이 아닌, 나만의 분류법으로 소중하게 보석함에 간직된 사물은 사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또는 그 존재 자체로 유일무이하게 존재한다. 고장 난 것, 낡아버린 것, 쓸모없는 것, 소외된 것, 버려진 것에서 나타나는 마법이 있기 때문이다.



수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사물이 들려주는 아주 사적이고 고유한 정체성의 목소리다. 어떤 사물이 가진 상처와 낡은 흔적은 과거의 기억을 구원하기도 한다. 수집가로서 샤로테의 보석함은 바로 이러한 과거의 파편들이 모여 진실을 공명하게 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샤로테는 녹음된 음악의 열렬한 수집가였기 때문에, 그녀가 실제로 들었을 법한 음악만으로 사운드트랙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수많은 음악을 찾아보고 들었습니다. 그 음악들은 유일한 연주를 담은 기록이에요. 아주 오래된 독일 동요부터 1990년대 유로-팝까지. 매체의 취약한 특성 때문에(특히 앰버롤 실린더*) 녹음물 대부분은 리마스터링이 어려워 재발매 되지 못했고, 후대에는 당시 녹음된 음악만큼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카바레(Weimar cabaret) 시대의 쿼어 음악들을 발견하고 기쁘고 놀랐는데, 가사가 유쾌하고 해방적이며 매우 노골적이에요.

이러한 음악사의 조각들을 모아 놓은 이 연극에서 음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역할을 보여 줍니다. 공기가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하며 녹아내리는 벽이 되기도 하고 샤로테 삶의 또 다른 기록이 됩니다.

음악 목록 (장면 순서에 따름, 제목-아티스트-년도-매체)

- 〈Falling in Love Again〉 Marlene Dietrich (1930)
- 〈Rhythm Is a Dancer〉 Snap (1992)
- 〈Wedding of the Winds〉 Pietro Frosini (1909) Edison Amberol n.103
- 〈Lieder ohne Worte, Op.19〉 Mendelssohn (1829)
- 〈Ich bin von Kopf bis Fuss auf Liebe eingestellt〉 Marlene Dietrich (1930)
- 〈Mein Himmel auf der Erde〉 Rost'sches Soloquartett (1904) Edison Goldsuss n.15078
- 〈Suse, Liebe Suse〉 독일 동요 (very old)
- 〈A Soldier's Song〉 The Red Army Choir (1945)
- 〈Wenn die beste Freundin〉 Marlene Dietrich, Margo Lion, Oscar Karlweis (1928)
- 〈Symphony n.2 Largo〉 Dmitri Shostakovich (1927)
- 〈The Cascades〉 Scott Joplin (1904) Pianola
- 〈The Rosary〉 Ethelbert Nevin (1898) Polyphon
- 〈Boom, Boom, Boom, Boom!!〉 Vengaboys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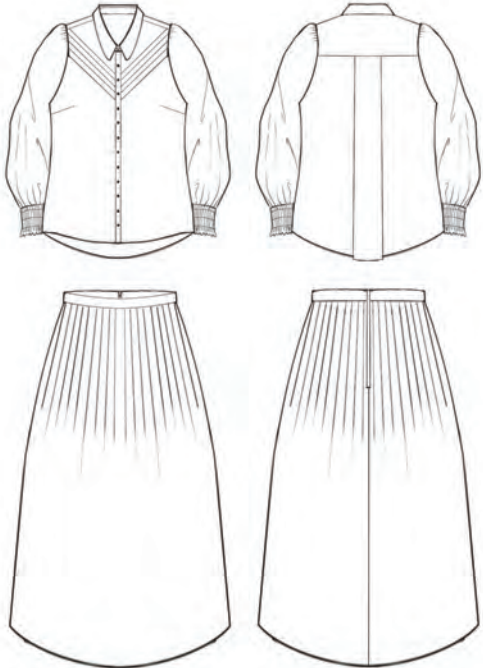
* 앰버롤 실린더: 1908년 에디슨이 개발한 축음기용 4분짜리 셀룰로이드 실린더

“한 인간의 진실은 단 하나의 목소리로 설명될 수 없다.”

샤로테는 ‘태어난 정체성’보다 ‘살아낸 정체성’에 가까운 인물로 자신을 스스로 창조한 존재다. 그의 정체성은 사물처럼 시대에 맞추어 고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시간이 총처럼 쌓인 인물이다. 이는 한 명의 배우가 30개 이상의 배역을 넘나드는 방식과도 닿아 있다.

의상은 현재가 아닌 그녀가 중요시한 문화와 시간에 기반한 구시대적인 의상에 가깝다. 마치 사라진 세계를 입은 듯한 분위기로 의상의 분위기는 박물관을 연상시킨다. 텍스처는 광택이 없는 낡은 느낌을 표현하며 인물이 오래도록 입어왔던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녀의 의상은 박물관 내 하나의 전시품처럼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의상이다. 정적인 실루엣의 면 소재 투피스로 시대성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 여성복을 착용한다. 의상에는 작은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배역으로의 전환에 방해 없이 중립성을 지킨다.



“비행기에서도 에디슨 레코드에서 나오는 이 음악이 들릴 거야. 그들이 나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자기들 친구라는 걸 알게 될 걸?”이라는 샤로테의 말을 좋아합니다. 바람 같기도 하고, 무심코 지나간 말처럼 내뱉은 샤로테의 말이 작업하는 내내 우리의 말이 되었습니다.

작품을 쓴 더그가, 그리고 샤로테가 그윈더짜이트 박물관 안의 물건을 어떻게 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미니어처 작업을 했습니다. 박물관의 미니어처가 아닌 미니어처 자체가 그들의 물건이라 생각하여 비율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실제 크기가 아닌 마음의 크기로 모인 것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기를 제외한 부분은 샤로테의 물건으로써 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나무, 금속, 패브릭 등 그 물성이 물체에서 표현하는 것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패브릭으로 표현된 것은 오래된 옷을 잘라 만들었습니다.

계속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단순한 물건이 아닌 극 중 인물의 소품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니 샤로테의 그윈더짜이트 박물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힘들었지만, 오히려 위로를 많이 받은 작업이었습니다.



2026년 <나는 나의 아내다>는 수어 통역, 자막 해설, 터치 투어, 사전 음성소개 등 접근성 강화의 시도를 더했다. 이는 단순히 접근성 장치를 도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 우리가 함께 샤로테의 삶을 경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타인이 함부로 정의해 버리거나, 나조차도 나를 단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더 많은 존재에게 샤로테의 삶이 당기를 바란다.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샤로테 폰 말스도르프 — 어떤 단어도 그(그녀)를 온전히 옮겨낼 수 없다. 작가 더그 라이트는 한 사람을 한 단어로 가두지 않는다. 이 지점은 수어 대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독일’, ‘나치’, ‘유대인’, ‘동성애자’, ‘여장남자’ 등 역사적 맥락과 교차성, 가치판단이 담길 수밖에 없는 표현을 수어로 어떻게 다뤄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은, 작품이 무대 위에서 던지는 질문과 비슷한 자리에서 만난다. 우리가 번역한 수어 대본이 이 극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을 규정지어 버려서는 안 되기에, 어떤 정보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누군가를 가두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했다. 더블 캐스팅인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두 명의 수어 통역사가 약 일흔 명의 인물 사이를 오가는 셈이다. 수어 통역사들은 지현준과 백석광 배우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연기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고민했다. 동시에 두 통역사가 한 무대에서 교대하는 순간마다 배우의 연기가 흐러지지 않을까, 두 통역사의 외적 특징이 서로 달라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을까를 함께 우려했다. 수어는 음성언어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농인의 언어이며, 그 안에는 농문화의 역사가 살아 숨 쉰다. 외모와 특성 등을 수어에 담아내는 것은 농문화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표현 방식이 샤로테에 대한 또 다른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수어 통역사들이 수어 대본 번역·감수·해설편집·모니터링·통역, 이 전반적인 과정을 거치며 대본 속 단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일은 평가의 무게를 가능한 한 덜어내기 위한 작업이 되기도 했다. 농문화를 품어내는 일은 수어 대본 번역과 통역에서 매우 핵심이 되기에, 농인 수어 통역사와 함께 수어 대본을 번역하고 감수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더 많은 자리를 위하여

우리는 초연으로부터 10여 년이 훌쩍 지나 또 다른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 그 시간 동안 ‘연극’ 또한 달라졌다. 누구의 자리를 비워둘 것인가, 누구의 자리를 마련할 것인가, 누구의 자리를 기다릴 것인가, 그동안 놓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더할 것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일은 이제 연극을 만드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질문이 되었다. 우리의 시도가 완벽할 수 없음을 안다. 어딘가 영성하거나 누군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질문하고 재차 부딪치는 이 현대의 시도들이 유효하다는 것 또한 안다. 오늘의 고민이 극장을 찾는 누군가의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 내리라 믿고 싶다.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나는 나의 아내다
I Am My Own Wife
By Doug Wright

6.24-7.12
두산아트센터 Space111

Original Broadway Production
by Delphi Productions
and David Richenthal.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작 더그 라이트(Doug Wright)
번역·드라마터그 김기란
연출 강량원
출연 지현준 백석광
조연출 박효진
프로덕션 무대감독 이지혜

무대디자인 장호
무대제작 아이엠(대표 장호)
제작팀 김호준 김대현 곽노근 장정인 오의택

조명디자인 최보운
조명팀장 정하영
조명오퍼레이터 이다솜
조명크루 고두영 김민기 김세희 김휘수 유예찬 윤재이
윤혜린 이은송 정찬영 주재현 채희수 허정현
조명장비 임차 위즈(대표 김근석)

음악·음향디자인·음향시스템디자인 지미 세르
음향오퍼레이터·음향크루 박영현

의상디자인 오현희
의상제작 팩토리88(대표 오현희),
FONDATION CYT(대표 최영탁)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박지희 김지영 한나래
티켓 이연서 김지은
사무 유은우 조소미

예술사업2팀장 박찬중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전지희 이정민 장보미 홍서희
교육기획 정다운 김서진 이담빈
기술총괄 황동철
음향 신승욱 류호성
조명 황동철 왕은지 김지산
무대 박소연 김태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김예지 최지인
하우스 안내원
권현수 김경미 김상윤 김서영 김수빈 김수아 김진형
김태희 문주아 심채민 안승한 오승현 이나예 이수민
이승훈 이하은 임소은 전윤희 조수빈 차승준

소품디자인·제작 소품 제페토
소품어시스턴트 조수빈

접근성 기획·운영 플랫폼 안녕(대표 이청)
접근성매니저 이청
한글자막디자인 이청
한글자막오퍼레이터 이수림
수어통역 멩혜진 김주민
수어대본 번역·감수 허인영
수어대본 해설편집 박진선
연습 수어통역 윤인지
수어통역 모니터링 이정희
터치투어 제작·진행 이청

그래픽디자인 포인터스(Pointers)
사진(프로필·설정·연습·공연) 서울사진관(대표 김호근)
사진(관객과의 대화) 스튜디오1024(대표 이재호)
영상(공연 실황) 헤즈스튜디오(대표 김선우)
SNS콘텐츠(이미지) 팡팡그래픽실험실
SNS콘텐츠(영상)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인쇄 으뜸프로세스

두산아트센터 2026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공연 예술

연강홀 Yonkang Hall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025.10.30-2026.1.25

연극 **뽕야** 3.3-5.24

연극 **플리백** 6.19-9.6

뮤지컬 **햇미플라이** 26.10.6-27.1.3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5

연극 **개기일식 기다리기** 1.15-1.17

연극 **경계넘기: 신진순박소영박뽕또 Part.1** 1.22-1.24

연극 **공룡과 공룡동생** 2.5-2.7

다원 **곡예사훈련** 2.5-2.7

연극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 3.5-3.7

연극 **나의 땅은 어디인가** 3.12-3.14

여성국극 **자네는 왜 그리 굉장히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 3.19-3.21

연극 **슬픔과 멜랑콜리 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외로운 조지** 3.26-3.28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연극 **모어 라이프** 4.29-5.17

연극 **원칙** 5.27-6.14

연극 **나는 나의 아내다** 6.24-7.12

공동기획

비밀 언덕 | 연극 **99%천재일기** 4.4-4.19

돌꽃이 | 연극 **경성의 고독한 미식가들** 7.25-8.9

DAC Artist

연극 **강更** 9.2-9.20

연극 **빈자리 없음** 10.28-11.15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강보름 신작** 11.25-12.13

시각 예술

두산갤러리 DOOSAN Gallery

두산아트랩 전시 2026 1.28-3.7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2025 결과보고회 3.-4.

DCW 전시 공모 기획전: 후모어스 4.22-5.3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3개국어 6.24-8.1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 정여름 개인전 8.26-10.17

두산갤러리 기획전 12.9-27.1.30

교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7-2.13, 7.8-8.14

두산인문극장: 강연 4.6-6.29

두산아트스쿨: 미술 4.9-4.30, 11.5-11.26

두산아트스쿨: 공연 8.18-8.21

두산아트센터 투어 9.21-9.22

Studio DAC: 아트 클래스 3.-12.

공모

공연 예술

DAC Artist 1.5-1.22

두산아트랩 공연 5.4-5.28

시각 예술

두산 해외 레지던시 4.28-5.8

두산아트랩 전시 9.29-10.9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1.17-11.27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